



신생아, 담배연기에 노출될수록 체중감소

직접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주위의 흡연자들이 내뿜는 담배연기에 노출되어 있는 임신부가 낳은 신생아의 경우 평균체중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산부인과학회에 보고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임신부가 가족이나 직장동료들이 피우는 담배연기에 많이 노출되면 될수록 신생아의 체중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간접흡연이 임신부와 태아에 미치는 폐해를 조사한 이 보고는 '환기가 되지 않는 방'에서 담배연기에 노출된 임신부가 낳은 신생아의 평균체중은 2천9백g으로 가장 가벼웠으며 '환기가 된 방'의 경우는 3천78g, '가끔 담배연기에 노출된' 경

우는 3천1백71g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는 특히 주위의 담배연기에 노출된 경우 하루에 3~5개비의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담배연기에 노출되는 양에 비례해 임신부의 모발속에 있는 니코틴 농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스트레스가 경동맥 손상시킨다

정신적 스트레스때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는 사람은 동맥경화의 위험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웨스턴 온타리오대학의 데이비드 스펜스 박사는 미국심장학회(AHA)의 연례 뇌졸중 회의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3백48명을 대상으로 특이한 컴퓨터 게임을 통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고 반응이 큰 사람의 경동맥변화를 2년간 추적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스펜스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이들에게 먼저 컴퓨터 게임을 통해 글자로 쓴 색깔의 이름을 대는 - 말하자면 "노랑색"이라고 쓴 빨강색 글씨를 보여주고 무슨 글자인지를 묻는 - 게임을 빠른 속도로 20분동안 계속하게 해서 스트레스를 잔뜩 올리면서 동시에 혈압을 측정해 보았다.

이들의 평균 실수율은 17%로 혈압은 평균 수축기혈압이 10포인트, 확장기혈압이 6포인트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는 게임 중에 오히려 혈압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었으나 다른 사람들은 혈압이 급상승했으면 심지어 게임 전에는 혈압이 80/120으

로 정상이었는데 게임을 하면서 124/174까지 치솟은 사람도 있었다.

스펜스 박사는 이어 이들을 대상으로 2년에 걸쳐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경동맥의 결손 정도를 초음파검사를 통해 측정했다. 그 결과 컴퓨터 게임 때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장 크게 나타난 사람일수록 경동맥에 새로운 침적물이 많이 발생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스펜스 박사는 밝혔다. 스펜스 박사는 이 결과는 물론 흡연, 당뇨병 등 다른 요인들도 감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펜스 박사는 이 컴퓨터 게임에서 혈압이 크게 오른 사람은 직장 상사나 아내에게 크게 화가 났을 때, 바쁜 사람이 심한 교통체증에 걸려 꼼짝 못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반응을 나타낼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